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드리지 마십시오.

✓ 사정이 있어 함께 참여하지 못한 가족의 건강과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음 명절에는 모두 건강하여 참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가족 모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BIG HOPE CHURCH
큰소망교회

2024년

설가정예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신명기 31장 7-8절 말씀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다같이
성경 봉독	--	신명기 31장 7-8절 말씀(구약 311쪽)	--	다같이
말씀	-----	약속의 땅을 향하여	-----	인도자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다. 한 해를 내다보면서 지난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해를 믿음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여행하여야 합니다. 준비 없이 여행을 출발하기보다는 준비를 갖춘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행을 위한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렵고 험난한 길 들을 헤쳐 왔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을 정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과 함께 열심히 일해 주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한 여행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땅을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2.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훈련과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라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왜소함을 느낄 수 있고, 백성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들로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가 함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고 하십니다.